



로댐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9. 11 창조절 둘째주일
- 오전 11시
- 친구사이 사정전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C. W. Fry
J. R. Murray

아5:13
made by musicday

찬양
(다 같이)

1.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2. 내 몸의 모든 열려 이 세상 고락 간 나와
3. 내 맘을 다 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예수님은 아름다와 라 산 밑에 백함 화요 빛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 험을 당할 때에 악
길이 나를 사랑 하리 니 물 불이 두렵 잠고 창

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 할 길아 주 없도 다 내
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사날 지키시 네 온
검이 겁 없 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 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라
까 지나를 돌아 보시 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함 빛
친히 주를 뵈기 원하 네

나는 새벽별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 아 멘

대표기도

- 재민 -

[창세기 37장 3-4절]

3. 이스라엘은 늘그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색동 옷을 지어서 입혔다.

4.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 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창세기 34장 23-34절]

23.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색동 옷을 벗기고,

24.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25.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27.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붙이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28.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30.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31. 그들은 숫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32. 그들은 피묻은 그 색동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3.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34.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 589)

설교
(구현우 목사님)

[날개 옷 & 색동 옷]

헌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1. 낮의 해와 밤의 달-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2.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충 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OMCA. Used by Permission.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구현우 목사 -

1.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2. 10월 9일 주일예배는

‘**흠어지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흠어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파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